

# 윈도NT에 대한 견제심리로 각광

리눅스 토발즈에 의해 개발된 리눅스가 DBMS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IBM을 비롯해 한국인포믹스, 한국오라클, 한국사이베이스 등 주요 DBMS 벤더들은 리눅스용 데이터베이스를 무료 배포하는 등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리눅스용 DBMS시장을 겨냥해 업체별 전략을 내놓고 있다.

〈글/박민식 기자〉

IDC의 조사에 따르면 '98년 전세계적으로 리눅스 탑재 서버가 212% 증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6.8%에서 약 17.2%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리눅스사용자의 수를 계산하는 리눅스카운터프로젝트는 작년 한해동안 리눅스의 사용자가 한국에서 3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갑작스러운 성장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가장 많은 하드웨어를 지원한다는 점 외에 인터넷 관련 운영체계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면서 "이젠 인터넷의 성장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으며, 따라서 리눅스의 성장은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리눅스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DBMS 지원을 발표한 것은 CA의 잉그레스였다. 이후 7월이 되면서 대형 DB업체들이 속속 리눅스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오라클이 리눅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인포믹스도 비슷한 시기에 지원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대형 DB업체들의 지원 발표로 그 동안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부족이라는 우려를 씻어내며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으로서 리눅스가 강력하게 부상하게 되었다. 리눅스 지원 열기는 계속 이어져 9월에는 IBM이 DB2를, 사이베이스가 사이베이스 어댑티브 서버를 리눅스에서 지원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로써 리눅스는 4대 데이터베이스 업체의 지원을 모두 받게 되었다.

최근에는 오라클과 IBM이 컴팩, 노벨 등과 더불어 세계 최

대의 리눅스 판매업체인 레드햇 소프트웨어에 공동 투자하기도 했으며, 오라클은 인텔과의 협력을 통해 인텔 표준 하드웨어에서 자사 제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HP, 컴팩, 델, 실리콘그래픽스, 씬마이크로시스템즈 등 하드웨어 업체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이런 리눅스용 DBMS 약진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주요 DBMS업체들의 이런 지원은 리눅스 자체의 우수성에도 기인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NT에 대한 기존 업체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NT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리눅스는 인터넷 환경의 플랫폼으로 양분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리눅스용 DBMS의 이용자들은 "리눅스 버전을 사용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에서 전문가 수준의 가용성과 특성을 요구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고 우수성을 지적했다.

한편 수년간에 걸친 미국정부의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마이크로소프트 불길처럼 번져 가는 리눅스의 확산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리눅스용 DBMS에 대한 지원 및 마케팅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가장 공격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한국인포믹스(대표 김광원)는 최근 출시된 일련의 리눅스용 인포믹스 DB제품 및 개발 툴을 기반으로 국내 리눅스 지원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인포믹스-SE(Standard Engine) 버전의 무상 배포를 비롯해 지난달부터는 한국리눅스비즈니스사를 통해 인포믹스의 엔터프라이즈용인 리눅스

스위트(모델명 IDS/LE7.3)를 리눅스 전문서적에 번들해 시판하고 리눅스 커널2.2 한글판이 출시되는 이번 달 이후에도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리눅스비즈니스, 웹데이터뱅크, 리눅스코리아 등 국내 리눅스 전문업체들과 공동으로 시장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리눅스 협력사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사차원에서는 5월에 리눅스용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제나(XENA) 9.2 리눅스 에디션' 베타버전을 발표하여 웹서버로 활용도가 높은 인터넷 시장을 더욱 공략할 예정이다.

한국오라클(대표 강병제)은 지난해 리눅스용 DBMS인 '오라클 8.0.5'와 '애플리케이션 서버 3.0.2'의 시험판 1만개의 무료 배포를 시작하였다. 지난달부터는 오라클 제품을 기반으로 한 리눅스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는 취지 하에 전국 6대 도시를 순회하며 개발 콘테스트와 세미나를 열고 있다. 또한 리눅스 솔루션 개발업체들과 연계해 기존에 파일 및 웹서버로 주로 사용하는 리눅스를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IBM(대표 신재철)은 지난해 'DB2 유니버설 디벨로퍼 에디션'이라는 리눅스 베타버전과 '넷 데이터'라는 리눅스용 CGI(Common Gateway Interface)를 발표한 데 이어 상용 버전을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IBM은 리눅스가 e-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유망하다는 판단에 따라 e-비즈니스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사이베이스(대표 김지문)도 모빌시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빌 데이터베이스 통합 솔루션인 'SQL 애니웨어 스튜디오'의 리눅스 버전을 출시하는 등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본격적인 리눅스 바람몰이에 들어간 DBMS업체들의 급선무는 레퍼런스 사이트 확보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리눅스 관련 사이트가 출현하는 등 리눅스용 DBMS 시장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 리눅스용 데이터베이스가 좋은 이유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의 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필요하다. 중소형급의 용량이 크지 않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나 수백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르다.

아울러 클라이언트 PC에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이나 인터넷에서 웹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지원하는 효율성은 엔진에 따라 다르므로 주용도에 맞는 적절한 엔진을 선택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용이성과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의 중요한 업무 데이터를 처리하는 플랫폼으로 UNIX가 전폭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유는 운영체제의 효율과 신뢰성이 높아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서버의 전반적인 다운사이징으로 UNIX 전용 머신보다는 PC서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PC서버급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리눅스는 기업의 중소형 데이터를 처

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리눅스의 안정성과 높은 퍼포먼스, 다양하게 지원하는 개발도구, 갈수록 편리해지는 관리성 등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주요 플랫폼으로 리눅스가 선택되는 이유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전반적으로 다운사이징 환경과 분산처리 환경으로 진행되면서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도입 비용이 저렴해지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고가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구입하는 것은 이전 더 이상 하나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값싼 리눅스가 선택되는 것이다.